

선호감성 어휘분석을 통한 남녀 대학생의 감성 유형화

Grouping Preferred Sensations of College Students Using Sementic Differential Methods of Sensation Words

나영주* · 조길수**

Young-Joo Na, Gil-Soo Cho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cluster the preferred sensibil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to distinguish the most preferred sensibility according to gender and their inter-subject differences. 98 of sensibility adjectives were composed into questionnaire with SD method and the data of 176 students were analyzed in ANOVA, Cluster and Correspondence analysis using SAS package.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10-sensibility clusters: the Casual(no-decoration casual, cool-dynamic casual and elaborate-clean casual), the Romantic Modern, the Simple Natural, the Classic(craft-romantic classic and monotonous classic), the Expressionless, the Gorgeous, and the Traditional Folklore. The adjectives and the sensibility clusters of students were visualized together into 2-D with two axis of static vs. dynamic and light vs. heavy.

Key words : Preferred Sensitivities, Preference Clustering, Visualized Cluster

요 약 : 98가지 감성 형용사를 수집하여 176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SD법에 의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차가 큰 감성어휘에는 '매니쉬, 수공예적인, 귀족적인, 섹시' 등의 중간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감성어휘들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차가 적은 어휘로는 '건조한, 인공적인' 등의 비선호감성과 '멋스런, 유연한' 등의 선호감성이 있었다. 선호감성에 의해 남녀 대학생들을 유형화시키면 남녀 대학생의 선호감성은 크게 10가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캐주얼파'였으나(32.4%), 이는 다시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 정성척결 캐주얼파'로 세분화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로맨틱 모던파'(21.4%)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 내추럴파'(17.3%)였다. 또한 '클래식파'(9.2%—수공예 로맨틱 클래식파, 획일적 클래식파), '비표현파'(8.7%), '호화개성 복고파'(6.4%), '민족감성 선호파'(4.6%) 등이 있었다. 감성어휘와 대학생의 집단들은 크게 두 개의 선호감성축(정적—동적, 경량—중량)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함께 그룹화/도식화될 수 있었다.

주요어 : 선호감성, 감성 유형화, 대학생의 선호감성, 선호감성의 가시적 표현

1. 서 론

소비자의 연령, 소득, 성별 등의 인구통계적 요소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감성, 가치관, 태도 등의 주관적 요소들은 상품개발, 시장 세분화, 브랜드 포지셔닝, 광고 메시지 표현전략, 매체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인구통계적인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개개인의 소비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으나, 소비시장이 성숙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원화, 개별화되어 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호감성의 내면적 기호도의 파악, 가치 체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1]. 감성어휘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점차 다각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청각, 후각, 시

*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각, 촉각 등의 자극의 종류별 감성을 연구하는 제한적 연구[2-6]와 쾌-불쾌 개념의 감성차원 구조에 관하여 보편성과 일관성을 연구[7]하는 총체적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쾌-불쾌 차원이나 자극의 양 및 종류에 따른 반응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정보 및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서 반응 및 감성을 조사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표현과 인격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성 가치관, 즉 심리적인 '욕구'와 '기호'를 철저히 연구하여 생산과 유통에 반영시키고 문화적 소비 및 체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른 욕구나 기호를 갖지는 않으므로 비슷한 유형으로 그룹화하고 이를 집단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수집과 더불어 이의 체계적,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다양한 기호 및 감성을 계량화, 수량화하고 시장에 따른 타겟 소비자의 잠재적 감성욕구를 명확히 알아 내는 것이 필수과제이다.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감성이나 선호도 등이 다르며, 동일한 연령일지라도 서로 다른 감성이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지역 및 성별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소비자의 지역, 성별, 나이 등의 특성에 따라서 비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선호감성이 달랐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즉 음식, 음악, 자동차색, 의복색 등 대상에 따라 선호감성은 변할 수 있지만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8].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감성이 달랐으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감성 식별력이 높았다[9]. 남성이 여성보다 '역동적인, 매니쉬, 와일드, 건장한, 섹시한, 기계적, 가정적인, 액티브, 유머의, 중후한, 자극적인, 모험적인, 복고풍의, 대담한, 민속적인, 수공예적인' 등을 선호한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우아한, 청순한, 장식적인'의 선호도가 높았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관능적인' 감성을 선호하였으나 '프린스/세스'풍의 감성은 여성보다 선호하지 않았다. 감성 식별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관능적인' 감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감성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용이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선호하는 감성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였으며, 그들의 선호감성 어휘의 내적 구조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그들의 선호감성유형의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남녀 대학생의 선호감성을 파악하고 개인차를 밝힌다.

남녀 대학생의 선호감성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분석한다.

감성어휘와 남녀 대학생의 감성유형을 도표로 표현하여 가시적 이해도 및 활용도를 증진시킨다.

2.2 측정도구와 연구대상 특성

선호감성을 질문하는 문항은 선행연구[9-11]를 참고하여 이를 수정, 가감하여 98개의 형용사로 구성하였으며 5점 의미미분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정대상에 대한 선호감성이 아닌 일반적 선호감성을 답하게 하여 해당 감성어휘를 선호하면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높은 점수는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일반전공의 남녀 대학생 176명(남성 85명, 여성 91명)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오른손/왼손잡이, 감성 풍부성, 감성 식별력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T-test, 요인분석, 분산분석, 다중비교, 대응분석 등으로 분석되었다. 176명 중에서 왼손잡이는 13명으로 7.3%에 불과하였으며 160명(92.5%)이 오른손잡이였다. 감성 풍부성은 '높은 편이다'가 피험자의 43.7%로 가장 많았으나 감성 식별력은 '중간이다'가 41.6%로 가장 많았다. 감성 풍부성이 높을수록 감성식별 능력이 높았다($r=0.56$, $p<0.0001$).

3. 결과 및 토의

3.1 대학생 선호감성의 특성

대학생의 선호감성을 조사하여 각 감성어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평균값과 그 차이여부를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감성어휘 98가지의 평균을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성은 ‘편안한(3.96), 맑은(3.93), 깨끗한(3.91), 캐주얼(3.90), 젊은(3.81)’ 등이었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기계적인(1.93), 폭발적인(1.93), 어린이다운(2.05), 획일적인(2.07), 민속적인(2.16), 인공적인(2.19)’ 등이었다. ‘민속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운치 있는, 고전적인’ 등의 감성에 대해 비선호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로맨틱, 텐디’ 등의 서양적인 감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우리의 독특한 감성은 큰 위기감에 빠졌다고 할 수 있었다. 속히 우리의 감성을 계발하거나 정체감을 찾고 홍보하여야 된다고 사료된다.

표준편차로서 감성 기호도에 대한 개인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개인차가 가장 큰 감성은 ‘매니쉬(표준편차-1.25), 수공예적인(1.21), 귀족적인(1.16), 섹시(1.19)’ 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감성들은 거의 중간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개인차가 적은 어휘는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한 평균에 밀집해서 분포한 것으로서 대학생 모두가 선호하는 감성과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감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멋스런, 유연한, 젊은’ 등이 높은 선호도 평균으로 3.24~3.81이고 표준편차 0.83~0.88이므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모두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평균값이 낮으면서 표준편차가 적은 감성으로는 ‘건조한, 인공적인, 엄숙한’ 등이 선호도 평균 2.19~2.47이고 표준편차 0.84~0.87이므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모두 선호하지 않는 감성이었다. 표준편차가 1.00 이하로 개인차가 적은 감성어휘가 61가지나 되었으므로 대학생들을 구분하기에 변별력이 있는 감성어휘는 37개의 감성어휘로 추려진다고 볼 수 있다. ‘정숙한’ 감성은 평균 3.17이고 표준편차 0.91로서 선호도에 개인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다른 어휘는 선호도에서 개인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섹시한’은 평균 2.71이고 표준편차는 1.20로서 개인 간 선

호도의 격차가 증가하였다.

남자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4 어휘를 살펴보면 ‘캐주얼한(3.97), 편안한(3.93), 맑은(3.91), 유쾌한(3.86)’인 반면에 여자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은 ‘깨끗한(4.10), 맑은(4.06), 편안한(4.02), 내추럴한(3.91)’으로 ‘편안한’을 제외하고 남녀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여자 대학생은 ‘아름다운(3.85), 세련된(3.83), 청순한(3.72)’ 등을 특별히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에게 자신을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의식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남자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어린이다운(2.13), 기계적인(2.15), 가련한(2.18), 폭발적인(2.19)’인 반면에 여자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폭발적인(1.70), 기계적인(1.74), 권위 있는(1.91), 인공적인(1.92)’으로 ‘폭발적인’과 ‘기계적인’은 동일하나 나머지는 서로 상이하였다.

3.2 선호감성에 따른 군집분석

98개의 형용사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11개의 요인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선호감성 유형을 나누고자 하였다. 선행연구[7]에서 총 요인은 11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이는 ‘로맨틱, 센수얼, 캐주얼, 클래식, 캐리터, 프린스/세스, 심플, 복고풍, 모던, 수공예, 테크노’ 등이었다. 이 때 요인점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들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별 항목의 요인값은 표준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는 반면에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총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표항목들의 합산값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군집분석은 최적분리 군집분석(Fastcluster)를 사용하였으며, 집단의 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설명력과 집단 간 변인차 등을 참고로 연구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결정하였는데, 집단 간 평균값들의 차이가 크고 그 특징이 뚜렷한 군집의 수를 선택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선호감성은 10집단으로 군집되었는데

Table 1. Preferred Sensation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djectives	Mean	S.D.	Male	Female	Adjectives	Mean	S.D.	Male	Female
청순한**	3.49	1.07	3.22	3.72	행동적인	3.47	0.97	3.54	3.43
우아한**	3.27	1.00	3.02	3.44	품위 있는	3.45	1.02	3.41	3.52
가정적인**	3.26	1.07	3.48	3.12	온화한	3.41	0.96	3.42	3.42
액티브한**	3.12	1.09	3.51	2.83	귀여운	3.40	1.12	3.28	3.51
유머의**	2.94	1.19	3.25	2.67	순한	3.40	0.97	3.36	3.43
수공예적인**	2.85	1.21	3.10	2.60	개성적인	3.38	0.98	3.50	3.28
건강한***	2.81	1.11	3.32	2.46	고운	3.36	0.95	3.22	3.48
중후한**	2.81	1.09	3.06	2.61	도회적인	3.36	0.95	3.14	3.60
매니쉬한***	2.75	1.25	3.59	2.10	참신한	3.34	0.9	3.48	3.23
다이내믹한**	2.74	0.99	3.01	2.51	로맨틱한	3.31	0.97	3.27	3.32
섹시한**	2.70	1.19	2.96	2.52	가벼운	3.29	1.02	3.31	3.29
역동적인***	2.65	1.11	3.03	2.35	점잖은	3.29	0.96	3.38	3.27
모험적인**	2.63	1.12	2.92	2.38	대중적인	3.28	0.89	3.33	3.25
복고풍의**	2.55	1.11	2.84	2.31	가련한	3.27	1.07	2.18	2.50
대담한**	2.54	1.07	2.79	2.36	감미로운	3.25	1.00	3.18	3.30
장식적인**	2.54	1.02	2.34	2.72	수수한	3.24	0.9	3.12	3.31
와일드한***	2.24	1.01	2.65	1.90	유연한	3.24	0.83	3.40	3.11
자극적인**	2.21	1.03	2.42	2.06	개방적인	3.21	0.98	3.44	3.05
민속적인**	2.16	1.02	2.35	1.99	고상한	3.20	0.94	2.85	3.47
기계적인**	1.93	1.00	2.15	1.74	포말한	3.20	1.00	3.21	3.23
편안한	3.96	0.93	3.93	4.02	소박한	3.19	0.88	3.24	3.14
맑은	3.93	0.97	3.80	4.06	섬세한	3.18	0.9	3.11	3.25
깨끗한	3.91	0.99	3.76	4.10	정숙한	3.17	0.91	3.18	3.18
캐주얼한	3.90	1.00	3.97	3.87	성숙한	3.17	0.9	3.32	3.06
밝은	3.84	1.01	3.91	3.80	서양풍의	3.15	0.9	3.33	3.03
젊은	3.81	0.88	3.81	3.85	댄디한	3.10	0.95	3.27	2.98
무난한	3.79	0.94	3.75	3.85	촉촉한	3.10	0.99	2.93	3.26
유쾌한	3.77	0.96	3.86	3.71	그윽한	3.09	0.95	3.22	2.98
내추럴한	3.75	0.99	3.55	3.91	윤기 있는	3.00	1.01	2.96	3.07
실용적인	3.75	0.87	3.77	3.75	완전한	2.98	0.91	3.09	2.94
순수한	3.74	0.94	3.68	3.82	운치 있는	2.94	0.98	3.17	2.76
합리적인	3.71	1.00	3.79	3.67	원숙한	2.90	0.92	3.02	2.87
세련된	3.70	1.06	3.56	3.83	귀족적인	2.78	1.16	2.62	2.91
은은한	3.70	0.94	3.58	3.79	동화적인	2.68	1.05	2.74	2.65
부드러운	3.68	0.90	3.66	3.68	고전적인	2.65	0.92	2.72	2.61
친숙한	3.68	0.90	3.63	3.73	차가운	2.60	0.97	2.67	2.54
안정된	3.67	0.87	3.61	3.76	정밀한	2.53	0.94	2.88	2.26
아름다운	3.64	0.98	3.44	3.85	호화로운	2.52	1.03	2.46	2.61
차분한	3.64	0.94	3.57	3.76	강렬한	2.48	0.94	2.75	2.21
산뜻한	3.60	0.96	3.61	3.64	엄숙한	2.47	0.87	2.63	2.34
담백한	3.60	0.90	3.55	3.62	대조적인	2.35	0.91	2.61	2.13
이지적인	3.60	0.97	3.58	3.65	전통적인	2.24	0.9	2.46	2.04
멋스런	3.58	0.83	3.50	3.66	건조한	2.22	0.84	2.33	2.14
모던한	3.56	0.90	3.49	3.64	권위 있는	2.22	0.96	2.57	1.91
정성이 든	3.53	1.02	3.61	3.50	딱딱한	2.22	0.91	2.42	2.04
단순한	3.51	0.91	3.44	3.55	인공적인	2.19	0.85	2.55	1.92
발랄한	3.51	1.11	3.53	3.53	획일적인	2.07	0.91	2.24	1.93
당당한	3.50	0.95	3.57	3.46	어린이다운	2.05	1.02	2.13	1.96
스포티한	3.47	1.08	3.63	3.35	폭발적인	1.93	1.05	2.19	1.7

(** $p < 0.01$, *** $p < 0.001$)

Table 2. Grouping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preferred sensations using Cluster analysis

유형	빈도(%)	로맨틱	센수얼	캐주얼	클래식	캐릭터	프린스/세스	심플	복고풍	모던	수공예	테크노
1	6(3.5)	2.94	1.44	4.00	2.42	2.08	2.00	4.17	1.42	3.42	4.25	3.00
2	11(6.4)	3.27	2.55	2.70	2.77	3.77	3.36	3.27	3.77	3.09	3.73	3.32
3	8(4.6)	2.29	3.29	2.33	2.44	2.50	3.04	1.81	3.50	2.56	2.25	2.81
4	9(5.2)	4.15	2.33	3.15	4.39	2.89	2.59	3.50	2.94	3.72	4.44	3.22
5	37(21.4)	4.05	2.63	3.83	3.54	3.01	3.25	4.07	2.08	3.77	3.34	3.14
6	7(4.0)	3.71	2.19	2.48	3.86	2.36	2.90	3.43	1.64	2.86	2.00	2.14
7	17(9.2)	3.75	3.86	4.33	3.56	4.21	3.20	3.38	2.97	3.56	3.79	3.79
8	30(17.3)	2.98	2.12	3.83	2.50	3.08	2.17	3.83	1.73	2.85	2.42	2.42
9	15(8.7)	2.82	1.71	2.64	3.03	2.43	2.20	2.83	2.07	3.27	2.30	2.50
10	35(19.7)	3.37	2.63	4.25	3.04	3.60	1.89	3.43	2.46	3.54	3.62	2.24

각 집단별 요인의 평균값은 표에서 제시하였다(Table 2).

남녀 대학생의 가장 많은 빈도 21.4%를 나타내는 집단 5는 ‘모던, 심플, 로맨틱’을 선호하는 부류로서 세련되면서도 단순하고 도회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로맨틱 모던파’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5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약간의 특색을 보이는 집단 4가 있는데, ‘로맨틱’을 선호하는 것은 유사하나 ‘모던, 심플’보다 ‘클래식, 수공예’를 선호하는 부류이므로 ‘수공예 로맨틱 클래식파’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 6도 ‘클래식’의 선호도가 높아서 클래식파라고 할 수 있으나 낮은 ‘수공예과 복고풍’의 기호도를 보이는 것이 다르므로 ‘획일적 클래식파’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 5와 집단 6을 합하면 클래식파라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9.2%를 차지한다.

남녀 대학생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큰 집단은 19.7%를 차지하는 집단 10으로서, ‘캐주얼’을 선호하고 ‘프린스/세스’를 싫어하지만 ‘캐릭터’성은 강하였으므로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집단 7은 캐주얼을 선호하면서 ‘센수얼, 캐릭터, 테크노’를 선호하므로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 대학생의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캐주얼파로서 집단 1은 ‘심플과 ‘수공예’를 선호하고 ‘센수얼, 복고풍’은 선호하지 않으므로 ‘정성정결 캐주얼파’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캐주얼파는 이상의 세 집단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32.4%를 차지하여 가장 큰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세 번째로 큰 집단은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 집단 8로서 ‘심플’을 선호하나 ‘수공예’를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내추럴파’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캐릭터, 프린스/세스, 수공예’를 선호하는 부류(6.4%)이므로 ‘호화개성 복고파’라고 명명하였다. 반면에 집단 3은 ‘캐주얼, 클래식, 단순, 모던’ 등의 선호도가 매우 낮으며 가벼운 감성은 선호하지 않고 ‘복고풍’을 가장 선호하므로 ‘민족감성 선호파’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 9는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집단보다 ‘센수얼, 수공예’의 감성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비표현파’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공예, 센수얼, 심플, 복고풍’ 등의 선호감성은 남녀 대학생의 감성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으로서 집단별로 평균값이 2.3~2.4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모던, 프린스/세스, 테크노, 로맨틱’ 등의 감성은 감성집단 간에 차이가 적어 평균값 차이의 범위는 1.2~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유형별 남녀 대학생의 특성

집단 1, 집단 5, 집단 6, 집단 8은 주로 여성이 많은 반면에 집단 7, 집단 10은 남성이 주로 많이 있었다. 즉, ‘캐주얼파’는 대부분이 남성이며, ‘캐주얼파’ 중에

서도 집단 1: 정성청결 캐주얼파에 여성이 많이 포함되었고, 집단 7: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와 집단 10: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에는 남성의 빈도가 높았다. 집단 5, 집단 6, 집단 8은 각각 '로맨틱 모던파, 확일적 클래식파, 단순 내추럴파'로서 주로 여성이 속해 있었으며, 이 밖의 다른 집단에서는 남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 중 남성은 주로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13.8%)이고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7.9%)였다. 반면에 여성은 주로 '로맨틱 모던파'(14.4%), '단순 내추럴파'(13.2%)이고 나머지는 '확일적 클래식파'(4.2%)라고 볼 수 있었다.

선호감성 유형에 따라서 왼손/오른손잡이의 비율은 다르지 않았으나 흥미로운 점은 왼손잡이가 집단 5: 로맨틱 모던파에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집단 1: 정성청결 캐주얼파, 집단 3: 민족감성 선호파, 집단 7: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 등에서는 왼손잡이가 한 명도 없었다.

감성유형에 따라서 감성 풍부성은 다르지 않았으나 집단 5와 집단 10의 감성 풍부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평균-3.97, 3.85), 다음으로 집단 6, 집단 7(3.85, 3.82)이었다. 이는 '로맨틱 모던파'와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의 감성이 가장 풍부한 경향으로서 로맨틱한 감성을 선호하는 여성이나 튀는 개성을 중시하는 남성의 감성 풍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사료된다. 감성 풍부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집단 2: 호화개성 복고파, 집단 3: 민족감성 선호파, 집단 8: 단순 내추럴파(평균-3.18, 3.37, 3.58)의 순서였으며, '호화개성 복고파'가 감성 풍부성이 낮은 편인 것은 감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오히려 호화로운 장식이나 귀족적인 감성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성유형에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감성 식별력은 유의하게 달랐는데, 집단 5: 로맨틱 모던파의 감성 식별력이 가장 높아(3.84) 이 집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과의 차이가 인정되었다($p < 0.01$). 다음으로 집단 7: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3.58), 집단 2: 호화개성 복고파(3.54)의 순서였으나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성 식별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집단 9: 비표현파(2.83), 집단 1: 정성청결 캐주얼파(2.93)

였으며 이들은 상기한 집단들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음으로 감성 식별력이 낮은 집단은 집단 8: 단순 내추럴파(3.03)였다. 이로써 '비표현파'는 거의 모든 감성에 대해 선호도가 낮은 것이 특징으로서 특별히 선호하는 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성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남녀 대학생의 선호감성 유형과 감성어휘의 도표화

각 요인에서 두세 가지의 대표어휘를 추린 26가지 어휘를 이용하여 대응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응분석은 분할표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동시에 나타내어 그것들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분석 기법으로서 감성어휘의 도표화에 유용하다. 26가지의 감성어휘는 그 유사정도에 비례하여 위치함으로써 Figure 1과 같이 2차원 평면 위에 도식화 및 가시화되었다.

'민속적인, 복고풍의' 등이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가벼운, 발랄한' 등이 왼쪽 끝에 위치하므로 가로축은 '경량 ↔ 중량'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위쪽으로는 '역동적인, 와일드' 등이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귀족적인, 장식적인' 등이 위치하므로 세로축은 '정적 ↔ 동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선호하는 감성에 따라서 176명의 모든 대상자들도 배치되었는데, 남녀 대학생의 10가지 감성유형이 감성어휘의 2차원 평면 위에 비슷하게 포개지고 있었다. 즉, 집단 3: 민족감성 선호파가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집단 9는 정적의 가장 밑에 위치하여 '비표현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 10, 집단 1, 집단 7의 '캐주얼파'가 같이 묶이며 집단 4, 집단 5, 집단 6이 유사한 군으로 묶이고 있었다.

집단 8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여 '단순 내추럴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군집분석에 의한 분류와 대응분석에 의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즉, 각 감성집단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감성어휘의 위치와 비슷하였는데, 선호하는 감성어휘 부근으로 남녀 대학생의 감성유형이 위치하여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분류가 타당하게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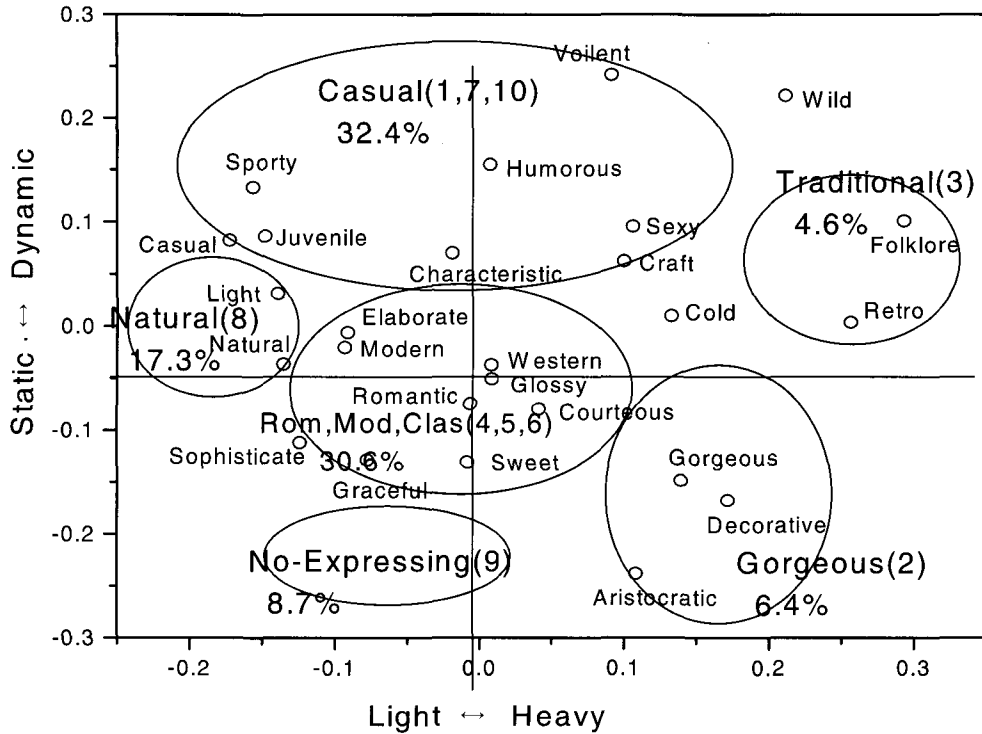


Fig. 1. 2D Image scale of preference sensibilities and students' clusters

4. 결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감성을 조사하고 선호감성의 유형을 분석, 그 특성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성은 '편안한, 맑은, 깨끗한, 캐주얼한, 젊은' 등이었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기계적인, 폭발적인, 어린이다운, 획일적인, 민속적인, 인공적인' 등이었다. 개인차가 큰 감성은 '매니쉬, 수공예적인, 귀족적인, 섹시' 등이었으며 개인차가 적은 감성은 '멋스런, 유연한'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감성어휘와 '건조한, 인공적인'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감성으로 나뉘어졌다.

남자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은 '캐주얼한, 편안한, 맑은, 유행한'인 반면에 여자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은 '깨끗한, 맑은, 편안한, 내추럴한'으로 남녀 대학생이 좋아하는 감성은 서로 달랐

다. 남자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어린이다운, 기계적인, 가련한, 폭발적인'인 반면에 여자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감성은 '폭발적인, 기계적인, 권위 있는, 인공적인'으로 남녀 대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감성도 역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남녀 대학생은 대다수가 '캐주얼파'로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 정성정결 캐주얼파'로 나뉘고 있었다. 다음은 21.4%가 '모던, 심플, 로맨틱'을 선호하는 '로맨틱 모던파'였다.

세 번째로 큰 유형은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 '단순 내추럴파'였으며, 네 번째 유형은 '클래식파'로서 9.2%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시 '수공예 로맨틱 클래식파와 획일적 클래식파'로 나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8.7%를 차지하는 '비표현파'로서 감성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선호하는 감성이

거의 없는 유형이 있었다. 여섯 번째 유형은 6.4%의 '호화개성 복고파'로서 감성 풍부성은 낮으나 감성 식별성은 높은 편인 특성을 지니는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극소수로 구성된 '민족감성 선호파'가 있었는데 이는 4.6%밖에 되지 않았다.

3. '로맨틱 모던파, 획일적 클래식파, 단순 내추럴파'는 주로 여성이 많은 반면에 '역동적 쿨개성 캐주얼파, 비장식 개성 캐주얼파'는 주로 남성이 많았다. 기타 다른 집단에서는 남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감성유형에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감성 식별력의 수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로맨틱 모던파'들의 감성 식별력이 가장 높았으며, '비표현파'와 '정성정결 캐주얼파'의 감성 식별력은 다른 집단의 경우보다 낮았다.
4. 선호감성 어휘와 함께 남녀 대학생의 감성유형을 '정적 ↔ 동적' 및 '경량 ↔ 중량'의 두 축을 갖는 2차 평면 위에 도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시성, 편리성 및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이용한 소비자 유형의 분류로서 소수의 유형을 나타내는 대학생의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비자 유형분석 절차는 타 연령대의 소비자 분석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조형오(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 223-240.
- [2] 윤정선 · 신미경 · 이강희 · 구아현(2000), 주거환경의 시각적 감성어휘, 감성과학 3(2), 67-74.
- [3] 민윤기 · 손진훈(1999), 생활공간음의 감성특성 분석, 감성과학 2(1), 69-75.
- [4] 백은주 · 이윤영 · 김완석 · 이배환(1999), 향 선호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감성요인, 감성과학 2(2), 23-30.
- [5] 박수진 · 정찬섭(1999), 우리말 감성어휘의 범주-차원모형, 감성과학 2(1), 77-94.
- [6] 이경희 · 김유진(2001), 패션감성의 척도화 과정, 감성과학 4(1), 33.
- [7] 김진관 · 문혜신 · 오경자(1999), 감성개념 이차원 구조의 안정성, 감성과학 2(1), 43-52.
- [8] 이해선(1999), 감성 마케팅-오감을 디자인한다, 그 린비, 서울.
- [9] 나영주 · 조길수(2001), 직물소리의 감성연구를 위한 SD법 관능검사의 활용, 한국섬유공학회지 30(11), 603-613.
- [10] 이순요(1992), 인간공학-미래지향적, 양영각, 서울, 380.
- [11] 하재경 · Nagamichi, M.(1997), 감성공학, 창조사, 서울, 86.